

# 아가미

2024

SCREENPLAY BY  
CHOI HYEJIN

1 EXT. 산중턱 - 낮

해가 쨍쨍하고 녹음이 짙은 산. 앞서가는 진우(33, 남)와 카메라로 주변을 찍으며 뒤따라 올라가는 희선(39, 여).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신은 진우와 달리 희선은 평상복 차림이다.

진우

전에 내한 왔을 때, 매니저가 한국인이라 매니저 추천으로 와봤대요.

공연 끝내고 며칠 관광 하다가 마지막 날에 여기 산꼭대기에서 노을 지는 거 보고 한국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남았다나 그러던데. 그래서 다음 내한 때는 여기서 봤던 그 분위기를 무대에 담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희선

그런 사연까지 있었어? 어쩐지. 나도 몰랐던 산을 외국 애들이 어떻게 알고 말하나 했네.

진우

나름 유명한 밴드가 한국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연출로서는 이렇게 말해주면 진짜 할 맛 나거든요.

희선

(헉헉대며)

근데 개네가 이렇게 험난한 산을 직접 올라가서 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진우

직접 봐야 알죠. 선배님도 허락하셨잖아요.

희선

(포기한 듯한 말투로)

그래 알겠어.

Cut to:

진우

(나무를 가리키며)

저런 나무 같은 것도 귀퉁이에 하나 세울 수 있을까요?

좀 큰 나무요.

**희선**

산꼭대기라며. 땅은 흙이야?

**진우**

돌 바닥인데 그 사이로 자란 큰 나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선**

(멈춰 서서 허공에 손짓으로 표현하며)

그럼 귀퉁이에 나무 제작하고 가지들 조명 앞에 이렇게 드리우게 해서 포그 좀 깔고, 빛줄기 이렇게 여러 갈래로 지게 하는 건 어때?

(사이)

무대 선 애들이 너무 안보이려나.

허공에 손짓을 하다가 흙바닥 위에 발로 그리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설명하는 희선.

**진우**

따로 하나 때리면 되죠.

(가방에서 도면을 꺼내며)

근데 빛줄기 보다는 하늘이 좀 땡 뚫려 있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네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하늘이 중요한 거라서.

(도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뒤랑 여기 조명들은 터놓는 게.

**희선**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까다로워.

그럼 딱 한 그루만 한다 치고.

(도면을 가리키며)

산꼭대기니까 여기쯤 포그 설치해서 열게라도 까는 게 좋을 거 같아.

**진우**

(멋쩍은 듯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걸릴까요?

**희선**

주말 이틀이면 다 하지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진우**

(웃으며 도면을 다시 집어넣는다)  
진희랑 애들 고생 좀 하겠네요.

**희선**

그러게.  
모레쯤 시안 몇 개 보내줄게.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펼치며)  
나무 지름은.. 25센치?

**진우**

음..  
(희선이 펼친 줄자를 보다가 희선의 손을 당겨 10cm  
더 늘리며)  
이 정도.  
누가 기대도 멀쩡할 정도로요.

**희선**

(줄자를 집어넣으며)  
그런 나무는 없어.  
(열게 한숨을 쉬며)  
근데 무슨 분위기를 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진우**

그니까 선배님한테 부탁했죠.  
저도 명확한 이미지가 안 떠올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올라가보면 감이 오지 않을까요?

**희선**

화려하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연자연을  
건 좀 어렵다. 다들 화려하고 튀는 걸 원하지 이런 적  
은 처음이네.  
(헉헉대며)  
근데 간단한 답사라면서 이렇게 고생할거면 미리 말하  
나 해주던가.

진우

얼마 안 남았어요.

앞서가는 진우와 힘들게 뒤따라가는 희선. 거친 오르막과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둘.

2-A EXT. 산꼭대기 - 노을지는 저녁

정상에 도착해 숨을 고르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넋이 나간 희선과 진우.

진우

(감탄하며)

어떻게 이런 동네에 이런 산이 있어요?

희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본다.

진우

(뿌듯한 표정으로)

제가 올라오자고 했어요.

이제 감이 좀 잡히지 않아요?

희선

(주위를 둘러보며 넋이 나간 듯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다 보이네.

진우

근데 이 동네 살았다면서요.

이 예쁜 데를 한 번도 안 올라와 보셨어요?

희선

(앉을 만한 곳을 찾아 몇 걸음 가다가 털썩 주저 앉으며)

20대에 등산 가는 애들이 뭐 흔한가.

그리고 내가 산을 탈 성격이니.

진우

(희선을 따라가 옆에 앉으며)

그쵸.

지금 선배님 보면 대학생 안희선이라고 등산을 했을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이 동네 살았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이런 산도 있고.  
물론 존재도 모르셨던 것 같긴 하지만.

**희선**

(생각에 잠긴 듯 멍한 표정으로)  
그치. 좋았지.

**진우**

저도 이런 데 살았으면 좀 고즈넉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쵸?  
전 서울 토박이라.  
서울 올라오고는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희선**

응.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사이)  
점점 어두워진다.  
내려가기 무섭네.

**진우**

그러게요.  
어두워지면 위험하니까 하산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내려가는 건 금방이니까.

**희선**

나 일 그만둬야겠다.

**진우**

네?  
(사이)  
갑자기요?

**희선**

(멍한 표정으로 노을을 바라보며)  
그냥.  
(사이)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진우**

왜요? 오래 생각하신 거예요?

**희선**

아니 방금. 그냥 문득.

**진우**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지는 해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한 희선. 무표정으로 담담하게 말을 시작한다.

**희선**

무슨 일이 있긴 했지.

근데 없는 일이라고 버티다가 여기 오니까..

**진우**

제가 뭐 실수했어요 혹시?

(당황하며)

여기까지 제가 너무 고생시켰죠.

죄송해요.

**희선**

이 동네에서 친구가 죽었거든.

(사이)

내가 죽인 거지.

### 3 INT. 희선의 집 - 낮 (Flash-Back)

작은 창문에 햇별이 드는 화장실. 마른 욕조 안에 나시에 반바지만 입고 시체처럼 널브러져있는 아정(25, 여). 핏기 없는 얼굴로 숨도 쉬지 않고 누워있다. 이내 아정을 부르며 달려오는 희선(25, 여). 욕조 앞에 쓰러지듯 앉는다.

**희선**

구아정! 여기서 뭐해!

아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버린 채 연신 소리를 지르는 희선. 놀라 눈을 뜨는 아정.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희선을 바라본다.

**아정**

왜 그래. 나 괜찮아.

아정이 살아있음을 알고 잠시 멈추는 희선.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더

크게 악을 쓴다.

**희선**

(몸부림치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죽은 줄 알았잖아.

**아정**

(희선의 팔을 잡으려 하며)

그냥 누워있었어. 진정 좀 해봐. 미안해.

진정시키는 아정의 손을 뿌리치고 울며 소리를 지르는 희선. 아정은 이상할 정도로 과민반응 하는 희선을 계속해서 진정시킨다.

#### 4 INT. 희선의 집 - 저녁

설거지를 하는 희선과 바닥에 앉아 새 토슈즈를 망치질하며 길들이는 아정. 앞서 일어난 일 때문에 둘 사이에 어색함이 감돈다. 설거지를 끝낸 희선은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가 아정 앞 소파에 드러눕듯 앉는다. 희선은 아정을 힐끔거리다 어색한 침묵을 깬다.

**희선**

오늘 강의 하나 휴강이라 일찍 왔어.

**아정**

아, 응.

다시 짧은 정적이 흐른다.

**희선**

(아정의 눈치를 보며)

토슈즈 길들여? 이번에도 게이 어찌고 거야?

**아정**

게이놀민든.

**희선**

아.

**아정**

그건 높아서 발이 불편하더라.



이건 그리쉬코.

다시 어색한 침묵. 옆에 놓인 크로키북을 집어들어 무대디자인 스케치를 끄적이기 시작하는 희선. 망설이다 말을 시작한다.

희선

오빠가 나 중학교 때 욕조에서 자살하려고 했었어.

흠칫 놀라는 아정.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희선을 바라본다. 희선은 연필을 끄적이며 답답하게 말을 이어간다.

희선

내가 발견해서 살았는데, 엄청 원망하더니 결국 집 나가버렸어.

(사이)

아까 죽을 거였어?

아정

오빠 일은 몰랐어. 미안해.

(다시 망치질을 시작하며)

근데 난 그냥 반신욕 하려고 한 거야.

좀 더워가지고. 찬물로.

희선

누가 욕조에 물도 안받고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있어.

아정

물 받으려고 했어.

희선

물부터 받지 누가 옷도 다 입고 욕조에 그따구로 드러 누워있냐고.

아정

(얼버무리며)

까먹었나보지.

희선

(아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크로키북을 거칠게 내려 놓으며)

야. 답답하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아정은 망치질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더니 망치를 내려놓고 몸에 힘을 실어 토슈즈 아치 부분을 구부리며 입을 연다.

**아정**

속이 좀 답답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래. 심각한 거 아니고.

**희선**

너 숨도 안쉬고 있었어. 알아?  
수면제 같은 거 먹은 거야?  
죽으려고 했어?

**아정**

아니야.

**희선**

그럼 뭔데.

**아정**

숨 참고 있었어.

**희선**

그게 뭔 소리야. 숨을 왜 참아.

**아정**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턱 막힐 때 있잖아.  
분명히 숨은 쉬고 있는데, 들숨 날숨 소리는 들리는데,  
안느껴질 때.  
그럴 때 숨을 한번 참아봤어. 근데 이번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숨통이 좀 트이는 거 같은 거야.  
(사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괜히 괴씸해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그냥 숨 참아버려.  
'그래, 그냥 죽어보자' 하면 그게 어디라도 숨이 쉬어  
지더라.

**희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아정

설마 죽겠어?

희선

야. 그거 사망플래그야.

어이없는 듯 웃는 아정.

희선

(심각했던 표정이 풀어지며)  
근데 너도 참 사고회로가 독특하다.

대답하지 않고 웃는 아정.

희선

어디 아가미라도 달린 거 아니야?

희선은 크로키북에 아가미가 달린 아정을 끄적인다.

아정

(능청스럽게)  
찾아봤는데 없던데?

희선

참나.

둘 사이 잠시 대화가 끊긴다.

아정

(희선을 힘킴거리며)  
그게 그 금테 연필이야? 비싸다는 거?

희선

(연필을 허공에 흔들며)  
응. 미쓰비시. 좀 부자 같니?

아정

뭐 그리는데?

희선

너. 아가미 달린 구아바.

**아정**

땡치지마. 과제 하잖아.

희선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린다. 크로키북에는 아가미가 달린 아정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다.

**희선**

(아정의 눈치를 잠시 살피고)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숨막히게 힘들대?

아정은 바지 단을 걷어 올리고 토슈즈를 이리저리 돌려 확인한 후 신기 시작한다.

**아정**

무용수는 수명이 짧아. 무대에서 반짝하고, 진짜 잠깐 빛나고 끝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부상 한번이면 당장이라도 끝날 수 있고, 이제 내 나이면 언제 끝나도 안 이상해.

**희선**

아직 이십대 중반인데?

**아정**

우리는 수명이 진짜, 진짜 짧아.

어두운 표정으로 토슈즈 리본을 묶는 아정.

**희선**

그래도 스무살에 동아에서 금상 받을 정도면 엄청 잘 한다는 거 아니야?

남자가 받으면 군면제라며. 그럼 적어도 한국에선 짱이라는 거지.

계속 어두운 아정의 표정.

**희선**

구아바.

아정이 보지 않자 다시 한번 아정을 부른다.

희선

야 구아정.  
너가 지금 현대무용하는 너네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창창해. 심지어 발레는 부전공이면서 웬만한 발레리나  
보다도 잘하잖아. 왜 벌써 끝날 걱정을 해.  
(장난스러운 말투로 부러움을 드러내며)  
너 이려고 있는 거 알면 세상 모든 재능 없는 무용수  
들이 너를 암살하려고 할 거다.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토슈즈를 마저 신고 일어나는 아정. 의자를 잡고 발  
끝으로 서보고 이리저리 발을 구부린다.

희선

구아바야. 오늘은 알바 몇 시야? 곧 갈 때 아닌가?

아정

9시. 원래 5시인데 이모가 오늘 수질점검이라고 좀 늦  
게 오래서.

아정은 발이 불편한 듯 토슈즈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찡그린다.

희선

마룻바닥 안미끄러워?

아정

좀 밀리네.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신어보고 살 걸.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늦게 나가.

희선

(웃으며)  
그럼 저녁으로 치킨 먹자.

아정

혈 대박. 안희선 짱이야.

희선

바로 시킨다. 반반 할게.

아정

응.

휴대폰을 가지고 주방으로 가는 희선. 싱크대에 대충 올려진 전단지 여러 개 중 치킨집 전단지를 집어든다. 싱크대에 몸을 반쯤 기대고 전단지를 보며 전화번호를 누르는 희선.

**희선**

우리 쿠폰 좀 모으지 않았어?

**아정**

(계속 발레 동작을 해보며)

몰라. 한 6개?

**희선**

일단 전화할게.

**아정**

응.

**희선**

(번호를 마저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대며)

여보세요.

여기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나 주시고요.

네. 치킨무도 하나 추가요.

순간 발목이 위험하게 꺾이며 주저앉는 아정. 옆에는 망치와 가위, 자른 리본끈이 널브러져 있다. 주방에서는 희선이 치킨을 주문하는 말소리가 들린다.

**희선 (S.O)**

혹시 쿠폰은 몇 개부터 돼요? 5개가 소스요?

아, 그럼 다음에 할게요.

40분이요?

네. 괜찮아요.

여기 현대홈타운 3차 102동..

주저앉은 채 꺾인 발목에 손을 올린 아정은 천천히 입을 벌려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가슴이 부풀고 어깨가 올라간다. 순간 입을 다물며 숨을 멈추는 아정.

햇빛이 쨍쨍한 길을 걸어가는 희선과 아정. 희선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있다.

희선

아이스크림 녹겠다.  
가면서 먹자.

아정

그래.

희선

(봉투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다 아정을 바라보며)  
돼지바?

아정

나 메로나.

메로나를 꺼내 아정에게 건네고 돼지바를 꺼내먹는 희선.

## 6 EXT. 고등학교 정문 - 정오

고등학교 운동장 앞을 지나다 멈춰서는 아정.

아정

좀만 놀다 가자.

몇 걸음 앞선 희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한다.

희선

과제 해야 돼.

아정

아, 너 과제 그만 해.  
너 머리한테도 식힐 시간 좀 줘라.

희선

(못이긴다는 듯)  
알겠어.

아정은 운동장 쪽으로 신나게 달려간다.

7 EXT. 운동장 놀이터 - 정오

구름다리에 매달리는 아정. 막상 놀이터에 도착하니 기분이 좋아진 희선도 아정을 따라 구름다리에 매달린다.

희선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입에 대충 물고)  
나 이거 짱 빠르게 갈 수 있다.

아정

나똥데.

희선

너부터 해봐. 내가 초 셀게.

아정이 희선의 시작 신호를 기다린다.

희선

시작.  
1, 2, 3, 4, 5, 6...  
야. 느려 느려.

아정

야. 너가 해봐.  
(희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작.  
1, 2, 3...

희선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헉헉대며 손을 놓아버린다. 큰 소리로 웃는다.

Cut to:

정글짐 꼭대기에 앉은 아정.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희선.

희선

야. 이거 은근 무섭다.

무서워하며 기어서 올라가는 희선. 아정은 꼭대기에 앉아 희선을 보며 놀리듯 웃는다.



Cut to:

하늘이 점점 어두워진다. 정글짐 위에 걸터앉은 희선과 아정. 아정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희선은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앉아있다.

희선

필종쌤은 잘 지내시려나.

아정

그러게.  
결혼 하셨던데.  
아내분 전지현 님이었대.

희선

(웃음을 터뜨리며)  
뭐래.

아정

(억울해하며)  
진짜야.  
김혜란이 사진 보여줬어.

희선

봐봐.

아정

(후대폰을 꺼내며)  
기다려봐.

사진을 보기 위해 아정을 올려다보는 희선. 아정도 몸을 기울여 희선에게 사진을 보여준다.

Cut to:

노을이 진다. 둘은 미끄럼틀을 타거나 모래 놀이를 하며 어린 아이처럼 논다.

Cut to:

철봉에 매달린 둘. 아이들 용이라 높이가 낮아 괜히 다리를 구부려 매달려 있다.

아정

무대디자이너 하면 얼마나 벌어?

희선

몰라.

선배들도 잘 모르는 거 같던데.

그래도 잘나가면 꽤 번대.

아정

몇 살까지 해 보통?

희선

뭐 힘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아정

그럼 나 나중에 백수되면 데리고 살아줘.

희선

너가 백수일 게 뭐가 있어.

아정

올라갈 무대가 없으면 그냥 백수인 거지.

희선

내가 만들어줄게.

아정

오. 감동인데? 그럼 같이 올라가자.

희선

내가 무대를 어떻게 올라가.

(사이)

근데 그때도 이모네 수영장 일 도와드릴 거야?

아정

그땐 아닐 걸.

나 무용한다고 돈 엄청 쏟아붓는데 이모네가 많이 도와줬어. 지금은 우리집이 안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대학 다니는 동안은 이모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희선

효녀네.

아정

(주변을 둘러보다)

이제 갈까?

희선

아 왜. 좀만 더 놀자.

아정

과제 한다며.

희선

(때를 쓰며)

아~ 구아바. 집 가기 싫어.

과제 안 할래.

어이없다는 듯 웃는 아정. 희선도 웃긴지 따라 웃는다. 철봉에서 손을 떼고 옆에 놓인 봉지를 집어 들고 걸어가는 아정. 희선도 나란히 걸어간다. 희선과 아정이 떠나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 놀이터.

## 8 EXT. 스포츠센터 앞 - 정오 (Series of Scenes)

- ▶1 스포츠센터 입구 앞. 주머니와 지갑을 뒤적이는 아정. 곤란한 표정.
- ▶2 스포츠센터 안을 들여다보며 주변을 서성이는 아정.
- ▶3 그늘 아래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제자리를 반복해 걸터다니며 통화하는 아정.

아정

자꾸 이런 일 생겨서 미안해. 이모.

아니. 원래는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통째로 놓고 와서...

아, 오늘은 이모부가 나왔어? 은행? 응응. 괜찮아.

볼 일 다 보고 천천히 오시라고 해.

아니야. 그냥 잠깐 놀면서 기다리면 돼.

응. 들어가세요.

- ▶4 벤치에 앉아 거북알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정. 아이스크림을 몸에 대거나 손부채질을 한다.

9 INT. 스포츠센터 수영장 - 오후

수영장 풀 쪼트머리. 아정이 물에 빠질 듯 쪼그려 앉아있다. 아정의 밝은 색 반팔티에 갈색 얼룩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다. 위태롭게 앞뒤로 흔들거리는 아정. 그때 아정 옆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아이. 아정은 놀라 일어난다.

아정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아이. 아정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본다. 아이는 멈춰서서 바닥에서 수경 하나를 집어든다.

아이

(뒤돌아 수경을 들어 보여주며)

이거 가지러 왔어요. 아까 두고 가가지고요.

아정

(넌브러진 물건들을 주우며)

아, 아까 낮에 한 수영 대회 나갔구나?

아이

네. 하는 거 봤어요?

아정

아니. 난 방금 출근해서.

아이

(아정의 손에 들린 수영모와 수경을 보며)

그거 연호랑 지연이 건데.

아정

이거?

아이

(끄덕이며)

네. 제가 갖다 줘도 돼요? 연호는 제 짝꿍이고 지연이는 방과후 같이 들어서 내일 학교에서 봐가지고요.

아정

그래 그럼.

(수영모와 수경을 넘겨준다)

**아이**

(양손 가득 받다 말고 아정을 향해 활짝 웃으며)  
저 아까 2등 했어요.

**아정**

(미소 지으며)  
그래? 축하해.

아이가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내며 수영장 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희선이 들어온다. 아정과 달리 꾸민 듯한 차림.

**희선**

이 시간에 웬 애야?

**아정**

(킥판을 정리하며)  
낮에 수영 대회 나간 애인데 뭐 놓고 갔대.  
대회 2등 했다더라.

**희선**

에고.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겠네.

물건을 정리하는 아정 주위에 맴돌며 대화하는 희선. 바지가 바닥에 끌려 젖지 않도록 단을 대충 구겨 접는다.

**아정**

학교 갔다 온 거야?

**희선**

응.  
(아정의 옷에 묻은 갈색 얼룩을 보며)  
옷은 왜 그래?

**아정**

(한숨을 쉬며)  
오늘 카드키 두고 와서 이모한테 전화하니까 오늘은 이모부가 대신 나왔다는데 하필 은행 가셨다 하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거북알 하나 사서 밖에서 먹는데,

희선

(아정의 말을 끊으며)  
그거 다 거북알이야?

아정

응.

희선

(아정을 놀리듯 웃으며)  
나이가 몇 갠데 그걸 그렇게 흘리고 앉았어.  
거북알 한두 번 먹어?

아정

(민망한 듯 웃으며)  
그니까.

희선

(웃을 자세히 보다가 빵 터지며)  
아. 모양도 웃겨.

키크관 정리하는 것을 멈추고 옷에 묻은 거북알을 매만지며 따라 웃는 아정.  
둘은 실없이 웃는다.

## 10 INT. 라커룸 - 오후

의자에 앉아 아정을 도와주는 등 마는 등 하는 희선과 캐비닛을 하나씩 열고 구석구석 닦는 아정.

희선

근데 요 며칠 무슨 일 있었어?

아정

왜?

희선

우리집 안오길래.

아정

(무언가 생각난 듯)  
아.

저번 주에 헤란이네 카페 갔을 때 있던 키 큰 알바 기억 나?

희선

그 뽀테?

아정

응. 얼마 전에 블로그 쪽지 왔었어. 김헤란 거 눈팅하다가 알아냈나봐.

희선

오. 언제?

아정

이삼일쯤 전에.  
그래서 쪽지 좀 주고받다가 어제 저녁에 만났어.

희선

오.

아정

같이 밥 먹고 카페도 갔다가, 그러다 뭐 어찌저찌해서 그 사람 집에 가게 됐어.

희선

영. 사귀는 거야?

아정

아니. 들어봐.

희선

알겠어.  
그래서?

아정

그래서 집 구경 좀 하고.  
고양이도 키우더라. 털 짧은 삼고양이.  
이름이 소주래.  
그러더니 소주 두 병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같이 좀 훌쩍대다가 잤어.

희선

잠어?

아정

응.

희선

원나잇?

아정

아니 잤다고.

희선

그니까 섹스했다고?

아정

아니 미친년아. 잠을 잤다고.

희선

미친년. 거기서 왜 잠을 자.

아정

(손걸레를 내려놓고 희선의 옆에 앉으며)  
빨리 마셔서 확 가버렸어.  
여친 있으면 어떡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한 침대에서 잤어.

희선

어우. 끝값. 잠만 잤다며.

아정

그래도 내 발로 집까지 들어갔는데.  
좀 더러운 사람 된 거 같아.

희선

야. 니가 쳐들어갔니? 개가 데려갔지.  
그리고 제정신이면 여친도 있는데 너 발로 지 집에 들어가게 뒀겠냐고. 쓰레기여도 개가 쓰레기지.

아정

그래도.



(사이)

카드키도 거기 두고 온 거 같아.  
오해 받기 싫은데.

**희선**

야, 여친 없으니까 애초에 너한테 들이댔겠지.  
있는데 그런거면 개 잘못이지 너 잘못이니?  
얼른 카드키나 받아와.

**아정**

그럼 다시 만나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봐.

**희선**

에앵. 지랄하네?  
너네 아무것도 안했어.  
그렇게 신경쓰이면 만나서 직접 물어봐. 여친 있냐고.  
없으면 확 사귀어버려.

(사이)

그래서 또 그러고 있었어?

**아정**

아니 뭐. 그 뿔테 때문만은 아니고.  
(옷에 묻은 얼룩을 만지며)  
카드키도 그렇고, 거북알도 그렇고.

**희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러다 진짜 죽어.

아정은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거북알이 묻은 옷을 거칠게 매만진다.

**희선**

야. 그 뿔테가 남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럽다.  
난 남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씨씨 많다는 봉사 동아리  
까지 들어갔는데.  
(애써 웃으며)  
나는 오늘 공모전 발표 났어. 또 망했고.  
너한테 하소연 좀 하려고 온 건데.  
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고민이 맨날 이런 거냐..

아정

아, 미안해.

희선

(애써 관찮은 척 일어나 옆에 놓인 손걸레를 집어들며)  
이쪽 닦으면 돼? 얼른 하고 가자.

미안한 얼굴로 희선을 쳐다보다 따라 일어나는 아정.

11 INT. 희선의 집 - 낮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는 아정.

희선 (S.O)

끝나고 집 갈 거야?

아정

오늘도 자고 가도 돼?

희선 (S.O)

야. 이 정도면 월세 내라.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가는 아정.

12 EXT. 희선의 집앞 복도 - 낮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가는 아정.

13 INT. 무용 연습실 - 낮

어딘가 지친 듯한 표정. 도착해 전신거울 앞에 털썩 앉아 머리를 묶고 연습할 준비를 한다. 스트레칭 하며 발목을 손으로 잡고 돌리다 얼굴을 찡그리는 아정. 일어나 준비 자세를 한 후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아정의 움직임에 따라 꿈틀거리는 근육들.

연습을 잠시 멈추고 구석에 놓인 물을 집어들어 마시는 아정. 숨이 차 허벅대다가 이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기 시작한다.

Cut to:

춤추는 아정의 모습.

Cut to:

숨을 멈춘 상태로 아무렇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대충 빗어 다시 묶으며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아정. 얼굴이 점점 빨개지며 목과 얼굴에 핏대가 선다.

Cut to:

고조되는 아정의 몸짓.  
높게 점프 후 착지하는 아정.

Cut to:

참았던 숨을 몰아쉬는 아정. 헛구역질 섞인 기침을 해댄다.

14 INT. 교수연구실 앞 복도 - 오후

희선이 의자에 앉아있다. 교수가 빠른 걸음으로 희선에게 다가간다.

교수

아이고. 6시였구나.

희선

안녕하세요.

교수

얼른 들어가자.  
많이 기다렸니?

희선

(멋쩍게 웃으며)  
아니에요.

교수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희선도 따라 들어간다. 문이 닫히고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린다. 닫힌 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교수와 희선의 대화 소리.

교수 (S.O)

응. 거기 앉아.

희선 (S.O)

네.

교수 (S.O)

작업은 잘 하고 있어?

희선 (S.O)

네. 교수님께서 전에 광화문에서 하신 작업에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인간의 습관에 대해 다루신 게 되게 인상깊었어요.

교수 (S.O)

(웃으며)

그러니?

희선 (S.O)

(따라 웃으며)

네.

(사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간의 행동에 대해 공부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책도 많이 찾아 읽고 있구요.

저는 특이한 소재를 찾아서 그림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작업은 재밌는 소재를 다룬 게 많으셔서 전부 터 교수님 수업 꼭 듣고 싶었어요.

교수 (S.O)

(웃으며)

고맙다.

소재에 관심 있으면 내가 30대 때 한 작업 중에 <변화의 발전>이라는 작업 혹시 아니?

희선 (S.O)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교수 (S.O)

그게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한 소재를 잡고 했던 작업인데, 보면 도움이 될 거야.

희선 (S.O)

네. 감사합니다. 꼭 볼게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울린다.

교수 (S.O)

무대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했지?

희선 (S.O)

네.

교수 (S.O)

무대디자이너는 무대를 너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림 실력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휴대폰 진동음이 한번 더 울린다.

교수 (S.O)

(휴대폰을 집어들며)

잠시만.

희선 (S.O)

아, 네.

교수 (S.O)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어, 그러니까.

무대디자이너라는 거는, 무대에서 주인공들이 빛나게 해주는 의미있는 직업이지.

지금처럼 중간 정도만 유지하면 디자이너 되는 데는 충분할 거야.

회화에는 재능이 필요하거든.

너 실기실 옆자리에 연옥이 이번에 그리고 있는 거 봤어?

(웃으며)

나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하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요즘엔 참 많아.

거기서 경쟁력이 없으면 너처럼 디자인 쪽으로 빠지는 게 취업도 그렇고 편할거야.

오래 생각하면 그게 똑똑한 거야.

잘 안되는데 붙잡고 있는 게 나중에 보면 후회되는 경우가 있잖아.

**희선 (S.O)**

(작은 목소리로)

저는 재능이 없어서 디자인 쪽으로 빠지려는 게 아닌데요..

**교수 (S.O)**

(웃으며)

알지.

잘 하고 있다는 뜻이야.

(사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루길 바랄게.

지금처럼 회화에는 굳이 욕심 안부리고 디자인 쪽으로 외부 활동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면 잘 될 거야.

**희선 (S.O)**

(작은 목소리로)

네.

(사이)

근데 저 그림에 욕심 안부리지 않아요. 저는..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린다.

**교수 (S.O)**

아, 잠시만.

의자를 드르륵 끄는 소리가 들린다. 연구실 문이 열리고 교수가 걸어나와 앞에 서서 전화를 받는다. 열린 문틈으로 앉아있는 희선의 뒷모습이 보인다.

**교수**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아이. 괜찮아.

어디? 난 진즉에 이사 갔지.

(희선 쪽을 슬쩍 보고)

근데 이따가 다시 걸어도 돼?

학생이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응응. 들어가.

(웃으며)  
아이고.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교수연구실로 들어가는 교수. 다시 닫힌 문 밖으로 대화 소리가 흘러나온다.

**교수 (S.O)**

어디까지 얘기했지?  
(사이)  
아무튼 열심히 하면 꿈은 이룰 수 있을 거야.

**희선 (S.O)**

네.

**교수 (S.O)**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더 할 얘기 있니?

**희선 (S.O)**

(잠시 침묵하다가)  
아니요. 없는 거 같아요.

**교수 (S.O)**

그래. 그럼 다음주 수업 때 보자.

**희선 (S.O)**

네.

의자를 드르륵 끄는 소리가 들린다.

**희선 (S.O)**

감사합니다.

**교수 (S.O)**

그래. 조심해서 가.

**희선 (S.O)**

네.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희선. 문앞 의자에 앉는다. 멍한 표정. 잠시 후 안에서는 교수의 통화 소리가 흘러나온다.

교수 (S.O)

응. 끝났어.  
그래그래.  
아 진짜?  
선물 하나 보내줘야겠네.  
(사이)  
내려가기는 좀 뻑뻑해.  
새로운 작업 하나 들어가서 바빠 나도.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희선.

15 INT. 지하철 안 - 저녁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열차 안. 발포지로 쓴 커다란 그림을 옆에 세워둔 채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희선. 어두운 창문에 희선의 모습이 비친다.

16 EXT. 길가 - 밤

그림을 들고 걸어가는 희선.

17 EXT. 언덕 위 - 밤

언덕 위에 앉아있는 희선. 옆에 놓인 그림. 풍경을 보며 멍때리다 그림을 잠시 응시한다. 희선은 무표정으로 일어나 그림을 밟기 시작한다. 조용한 언덕. 희선은 헉헉대며 계속해서 그림을 밟는다.

18-A INT. 희선의 집 거실 - 새벽

몇 조각 남지 않은 다 굳은 피자과 캔맥주, 각종 과자들을 펼쳐 놓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둘. TV에는 개그콘서트 재방송이 나오고 있다. 아정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중간중간 추임새만 넣으며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희선.

희선

해 뜬다.

아정 (S.O)

작가나 영화감독 같은 건 나이 들수록 오히려 연륜이 쌓이잖아.



옛날엔 그 잠깐 반짝 하는 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쫄려.

사실 부상만 아니면 그래도 몇 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선배들 돈 번다고 티칭 쪽으로 빠지고, 부상 때문에 하나 둘 때려치는 거 보면 불안해.

**희선**

(끄덕이며 건성으로)

음 그렇겠다.

**아정**

나랑 같은 실기실 쓰는 희주라고 있는데, 이번에 독일까지 가서 콩쿨 나갔다가 디스크 터져서 무대 끝내지도 못하고 실려나갔대.

**희선**

(여전히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에고. 어떡해.

**아정**

잘 살다가도 그렇게 현실이 훅 다가오면 숨막히는 거지. 현실에 압도 당해 자꾸.

그러니까 계속 숨을 참아버리는 거야.

삶에 미련 가지면 아쉬워지니까.

**희선**

구아바야.

넌 진짜 전생에 물고기였나 보다.

(사이)

너 광어에 간장 찍어 초장 찍어?

**아정**

(어이없어 하며)

그게 지금 흐름상 맞는 말이야?

나는 간장.

**희선**

다들 간장 찍더라. 근데 난 초장 찍어.

생선은 구워먹을 때나 간장 찍지.

회는 초장이야.

아정

광어는 어떻게 해도 간장이지.

희선

너 광어 구워서 먹어봤어?

아정

광어 구이? 구이로도 먹어 그걸?

희선

응.

아정

넌 먹어봤어?

희선

응. 고딩 때.

아정

어쩌다가?

희선

성강대 실기대회 은상 받고 축하한다고 가족들이랑 레스토랑 가서 처음 먹어봤어.

그때 너 코리아국제에서 대상인가 받았을걸.

같은 날 발표 냈잖아.

아정

아, 너가 찍어서 보내줬었지 않아?

광어 스테이크였나?

희선

응. 맞아.

아정

(일어나며)

맥주 남았어?

희선

응. 냉장고에 있어.

아래쪽에, 안쪽에 보면 있을 거야.

**아정**

아, 알겠어.  
(주방으로 걸어가며 큰 소리로)  
너도 줘?

**희선**

아니. 나 배불러.

**아정**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돌아오며)  
아무튼 그때 그래도 너가 은상으로 만족하는 거 같아서 진짜 다행이었어.  
나한테 질투날 수 있잖아.  
(문틀에 기대 웃으며)  
근데 넌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마냥 신나 있더라.

희선의 표정이 굳는다. 아정은 희선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문틀에 기대 방 안의 TV를 응시하며 말을 이어간다.

**아정**

하필 같은 날 발표 나서 괜히 축하한다는 연락도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가 먼저 문자해줬잖아. 그거 받자마자 엄청 안심 됐어.

**희선**

(아정을 바라보며)  
안심 됐어?

**아정**

응?

**희선**

니 눈에 나는 은상에 헤벌레 하는 병신으로 보였겠다.

**아정**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며)  
어?

**희선**

나는 그냥 은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아정**

(당황하며)  
그런 말이 아니잖아.

**희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낮은 상을 받아도 나는  
너 위해주기 바빴구나.

(사이)

질투라는 건 원래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야.  
찌질하고 기분 더러운 감정이라 다들 아닌 척해도 누  
구나 한다고.

그래도 난 너가 나보다 좋은 상을 받든 말든 상관 안  
써. 너가 잘되면 진심으로 기뻐.

근데 너 얘기 들어주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  
아?

(허탈하게 웃으며)

난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너네 집 선풍기 고장난 얘기, 거북알 먹다 흘린 얘기.  
남자랑 잔 얘기. 그니까 진짜 잠만 잔 얘기.

그거 바로 앞에서 듣는 나는 전시 제출 마감도 못 맞  
추고, 공모전도 2개나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게 짜증나는 거야.

숨을 참아야 되는 사람은 나인 거 같아서.

너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거 같아.

**아정**

그게 내 잘못이야?

희선은 아정의 반응에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말을 시작한다.

**희선**

내 얘기는 언제 해? 내 말은 언제 들어줄 건데?

**아정**

하면 되잖아.  
내가 못하게 했어?

**희선**

쉬지 않고 나 힘들어, 힘들어 하는 애한테 어떻게 내  
가 더 힘들다고 말해.

난 너가 의지가 하나도 안 돼.  
 뭐가 그렇게 다 힘든데?  
 몸 쓰다보면 다칠 수도 있고, 돈 없으면 다른 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무용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사는 거  
 잖아.  
 그만큼 무대에서 다 너만 쳐다보잖아.

아정이 희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잠시 말을 멈춘  
 희선은 아정을 계속 응시하다가 다시 말을 시작한다.

**희선**

혹시 나 보면서 우울감 느끼니?  
 ‘난 별 고민이 없어서 이런 사소한 걸로 힘들어’  
 이러는 거야? 일부러 내 앞에서?  
 (사이)  
 야.  
 죽을 거면 차에 치이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갈 거면 그냥 한 번에 가라고. 가만히 앉아서 숨 참으  
 면서 숨이 쉬어지네 지랄 같은 소리 그만하고.  
 우리 오빠나 너나 죽을 강도 없으면서.  
 너는 그냥 세상 우울 혼자 다 가진 천재인 척하는 정  
 신병자야.

희선의 말이 끝나고, 아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희선을 응시한다. 아정은  
 이내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

**희선**

(아정이 들으라는 듯)  
 그래 내 집에서 나가.

아정이 나간 뒤, 혼자 씩씩거리는 희선. 창밖에는 해가 뜨기 시작한다. 조  
 용한 거실에 혼자 남아 괜히 과자를 몇 개 집어 먹는다. 손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신경질적으로 털고 싱크대로 가 물을 튼다. 흐르는 물에 과자  
 부스러기가 붙은 손가락을 가져다 댄다. 생각에 잠긴 듯 물을 가만히 바라  
 보는 희선.

**19 INT. 화장실 - 밤 (Flash-Back)**

화장실 욕조 밖으로 튀어나온 남성의 다리.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세차게

나오고 있다. 욕조 밖으로 흘러넘치는 물.

18-B INT. 희선의 집 거실 - 새벽 (Back to Scene)

한 손으로 거칠게 수도꼭지를 내려 물을 끄는 희선. 불안한 표정.

희선

아 씨...

황급히 나가는 희선.

20 EXT. 길가 - 이른 아침

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희선.

21 EXT. 길가 - 이른 아침

스포츠센터로 걸어가는 아정. (아정 POV)

22 EXT. 길가 - 이른 아침

희선이 뛰기 시작한다. 발소리가 점차 흐릿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힘들어 걸음이 느려지다 다시 뛰다를 반복하는 희선.

23 INT. 수영장 - 이른 아침

아정이 죽기 전 목격한 마지막 풍경들이 보인다.  
아정의 시선에서 보이는 수영장 물이 출렁이는 모습. 창밖 풍경.  
주변을 둘러본다.(아정 POV)

24 EXT. 스포츠센터 앞 - 이른 아침

스포츠센터 앞. 뛰다 지쳐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희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멈춰선다. 한참을 응시하는 희선. (Sound Mute)

25-A INT. 수영장 - 이른 아침

수영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희선. 수영장에는 또다시 얼굴을 박고 엎드린 아정이 있다. 천천히 다가가 옆에 서는 희선. 희선은 직감적으로 아정이 죽었음을 안다. 천천히 아정의 옆에 앉는 희선. 수영장 물이 넘실거리며

희선의 운동화 끈을 적신다. 눈물을 참기 위해 눈썹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 쓸어넘기는 행동을 반복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는 희선. 울음소리인지도 잘 모를 꺾꺾 먹어들어가는 소리가 수영장에 울린다. 어디선가 열게 들리는 아정의 숨소리와 희선의 울음소리가 점차 물에 잠긴 듯 멍멍하게 들린다.

2-B EXT. 산꼭대기 - 노을지는 저녁 (Back to Scene)

노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희선.

희선

그냥 내가 좀 더 기뻐요 됐는데. 그치?

(사이)

또 염치없이 용서받고 싶어.

눈썹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 쓸어넘기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희선.

25-B INT. 수영장 - 이른 아침 (Flash-Back)

한참을 움직이지 않다가 고개를 드는 아정. 아정은 희선의 옆에 앉는다. 희선은 그런 아정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린다. 수영장에는 출렁이는 물소리와 함께 희선의 울음소리가 작게 울린다.

<끝>